

장흥 '무산김(주)' 자본금 확충 시급하다

전국 제1 친환경 김 유기식품 연매출 50억 급성장 불구 과다한 금융부담 속 경영권 위기... "郡이 출자 지원해야"

전국 제1의 친환경 김 유기식품으로 자리매김한 '장흥무산김'에 대한 행정당국의 자본금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장흥무산김(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김양식어민 110명으로 설립한 '무산김(주)'는 전국 유통망을 통해 년 50억원대 매출 신장으로 브랜드화하고 있다.

전국적인 김생산량 감소(22%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매출 실적을 살

펴보면 2015년에 30억원(내수 27.4, 수출 2.6), 2016년에 36억원(내수 34.4, 수출 1.6), 2017년에 42억원(내수 36.9, 수출 5.1), 지난해는 41억원(내수 35.6, 수출 5.4)으로 친환경 김 선도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장흥무산김은 국내·외 유통기반을 확보해 생김제품(일반김, 재래돌김, 김밥김 등 6종)과 가공제품(삼단도시락김, 미니도시락김, 조미김, 구운김 등 8종)을 국내는 전국 학교급식에 외국은 홍콩, 미국, 캐나

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 유통기반을 확보했다.

장흥무산김(주)는 전국 제1의 친환경 김 대표 브랜드 장점을 살려 전국 학교급식과 홍콩 학교급식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100억원대 매출 목표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6억8000만원의 막대한 자본금 상황에서 농협과 수협에서 빌린 30억원(경영자금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이 1억7000만원으로 과다한 금융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무산김(주) 측은 지난해 110여명의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출자 요구와 함께 제3투자자 모집 등 획기적인 전략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어업인이라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출자를 꺼려한다. 제3투자자가 참여하면 경영권이 넘어갈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군 장흥무산김 대표이사는 "완도군이 '완도 전복(주)'에 30억원 출자를 통해 운영·경영 등 의결권에 참여하지 않고 지도·감독권 행사로 성공적인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흥군이 15억원(5억원씩 3년) 규모의 출자금만 지원해주면 여민소득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장흥경찰·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아동 권리보장·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의회, 장흥경찰서, 장흥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와 아동 권리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업무 협약(사진)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중순 장흥군수, 위등 장흥군의회위원장, 박준성 장흥경찰서장, 왕명석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원 강진소방서장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각 기관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취지와 지향점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 아동의 4대 권리 보장, 아동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 군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아동이 건강하게 놀 권리와 교통과 환경,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질 좋은 교육환경,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 등을 펼칠 방침이며 아동친화도 조사와 원탁토론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하여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아동을 위한 좋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인 강진읍 영랑로에 전국 243개 기초 자치단체 깃발이 내걸렸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청자촌 한국민화뮤지엄 백송 한영희 '민화부채전' 개최

강진군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은 남송 한영희 작가 초청 '맑은 바람 민화부채전' <사진>을 개최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국민화뮤지엄 2층 생활민화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영희 작가의 부채에 그린 민화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한 작가는 청주대 공예과와 숙명여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충북민화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민화뮤지엄의 초청전이자 한영희 작가의 14번째 개인전이다.

부채 자체가 다양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어 민화와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때로는 강렬한 붉은 색으로 화면을 지배하고, 때로는 여운을 남기는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차분한 톤의 작품으로 작가의 세심한 강약 조절과 표현력이 돋보인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강진에 전국 243개 기초단체 깃발 '펼럭'

군, 2019개 깃발로 '올해의 관광도시' 이벤트 거리 조성

강진읍 영랑로에 전국 243개 기초 자치단체 깃발이 마치 학교 운동회 때 만국기처럼 펼럭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9 올해의 관광도시'인 강진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본격 관광객 유치에 영랑로 240m 구간에 전국 지

자체 깃발과 관광 홍보물, 만국기 등 각종 깃발을 내걸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이벤트 거리를 만든 것으로, 깃발만 모두 2019개가 걸려 있다.

군은 이벤트 거리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강진에 대한 관광정보를 상시적으로 알리고 보은산, 영랑생가, 사의재, 모란공원 등

강진읍 주요 관광지들에 대한 방문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운영강 강진군 기획홍보실장은 "외지에서 강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자기 지역의 깃발을 보게 되면 호기심을 갖고 왜 깃발이 걸렸는지, 무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묻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착안해 이 같은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이색 풍경을 자연스럽게 올해의 관광도시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영암군, 소·염소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영암군이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소·염소 등을 사육하는 1464농가(5만8721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이달 중 실시한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은 매년 4월과 10월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지난 1월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으로 긴급 접종(1월 28일~2월 3일)한 상황을 감안해 1차는 5월, 2차는 11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했다.

접종백신은 2가(O+A형) 백신으로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직접 축협을 통해 구매(보조 100%)해야 하며 50두 미만 소 규모 농가는 전액 무상 공급된다.

백신 접종 방법은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자기접종,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으로 구성된 접종반을 편성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난 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을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 항체양성이 미만(소 80%, 염소 60%)일 경우 해당 농가에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을 실시

하고 항체양성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가 단위의 철저한 소독, 백신 적기공급 및 신속한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담공무원 입회하에 접종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접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영암군 '현수막 실명제'로 불법광고물 근절

도시경관 조성 목표... 어길 땐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

영암군이 최근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선전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 광고물 제작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수막 우측 하단에 광고업체명,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광고주에겐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광고업체는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제작 설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불법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등에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시킨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군은 현수막 실명제 시행에 앞서 지난 3~4월 2개월간 집중홍보와 더불어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군은 실명제를 어길 경우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를 추적 관리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동일 영암군 도시개발과장은 "현수막 실명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고 선전광고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